

# 잣나무 추파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

본회 부회장 김 명 원

잣나무 추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 된바 있으나 실제로는 1979년 즉 작년도 청주에서 거행한 양묘세미나에서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신 충북의 고 박종원선생께서 실험 발표함으로서 처음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래 추파사업을 실행 못한 중요한 문제점은

1.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후 포지를 확보하고 또 종자 등 확보하다보면 결빙기가 도래해서 작업이 곤란 했으며
2. 월동중 들쥐 인축 기타 피해가 염려되고
3. 이른 봄 동상해에 의한 피해등이였습니다.

그러나 추파사업을 했을 경우 조기발아가 되고 조기발아가 되므로해서 5~6월의 한발과 일사병에 피해가 감면되고 성장기간의 연장으로 묘장과 비대성장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며 실지 고 박종원선생 시험재배에서 100% 입증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동안 실시해온 춘파사업은

1. 노천 매장에 의한 발아촉진 속도조절이 어려워서 촉진과속으로 인한 피해등이 있었고
2. 2-0 성묘 득묘율이 매우 적고 따라서 2-1 성묘 득묘율이 당국에서 책정한 수량에 많이 미달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실정으로 낙엽송이나 오리나무등은 묘장을 염려하지만 잣나무 양묘에 있어서는 묘장의 몇cm 더 크게 키운다는 것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였으므로 잣나무 추파사업은 큰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각지에서 많이 실시했으며 저도 그중 한사람으로서 종자 1,400키로(20가마)를 추파(11월25일) 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79년 잣나무 추파사업  
포지의 조상 시비 피토 작업은 대략 종전과 같

이하였고 월동중 상면 피복과 동상해 방지에 대하여서는 대략 다음 유형의 여러 방법을 채택하여 보았습니다.

1. 상면에 왕겨를 덮은후 비니루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짚을 덮는다.
2. 상면에 짚을 덮고 비니루를 덮은 다음 해가림용 망사를(차광망가리소) 덮는다.
3. 상면 피토후 왕겨를 피토체로 덮고 그 위에 짚만 좀 두껍게 덮는다.

이상 세가지 피복방향을 실시 사업한 결과 (1) (2) 비니루 덮은 것은 발아촉진이 너무 빨라져서 2월중에 (2월26일)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제거 했을 경우 상면의 노출된 부분에 서리발 및 동해 피해의 염려가 많았습니다.

(3)의 경우는 서리발 피해는 적었으나 짚 사이로 조기발아한 묘가 동해를 입었으며, 특히 3월 및 4월초까지는 피복 방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복물이 강풍등으로 비산되었거나 하여 상면이 노출 됐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동해를 입었으며 따라서 종자의 발아진도에 따라 일부 피복물을 제거 또는 슈아쭈과 동시 해가림용 비니루 망사시설 같은 것을 덮어 주어 동상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9월말 현재 추파한 잣나무 포지의 득묘수 및 생육상태는 춘파에 비교하여 월등 우수했으며 특히 묘장이 1~2cm(추파 7~8cm 춘파 5~6cm) 크게 자랐습니다.

묘장이 1~2cm 더 크다는 것은 잣나무 양묘에 있어서 특기 할만한 발전으로서 앞으로 20묘 2-1묘 성묘 득묘에 있어 큰 기대를 걸 만한 일로서 추파사업에 따른 방한시설 및 관리 등 노력과 자재 대가를 감고도 남음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이제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